



제목	Sculptures of the Museum in Antalya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Dönmez Offset
발행일	2008. 1.
저자	M. Fdip Özgür
출판도시	Ankara
페이지수	163
ISBN 또는 ISSN	978-9753871006

내용 요약

이 책은 안탈리아 박물관(Antalya Museum)에 소장 중인 AD 2~3세기의 로마시대 조각품 68점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조각품들은 제우스(주피터)와 헤라(주노), 아르테미스(다이아나), 아프로디테(비너스), 아테나(미네르바) 등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과 트리아누스와 하드리아누스 같은 역대 황제들과 그들의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리스 조각의 복제품이라 폼하되기도 하지만 로마적인 특성이 가미된 높은 수준의 조각품들로 평가되고 있다. 이 책의 구성을 보면 신들의 조각상에서는 그들이 등장하는 신화에 대한 요약과 더불어 발굴 당시의 상태 및 예술적 가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황제들과 그 가족의 경우에는 당시의 역사적 사건들을 포함하여 작품의 이해를 돕고 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인들과 달리 매우 현실적인 감각을 지닌 사람들로서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답습했으나 그것을 로마식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사실주의 예술로 발전시켰다. 그리스의 많은 조각들은 청동으로 주조된 것이었는데 로마인들은 이것을 대리석으로 복제했으며, 그리스인들처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차원에서 조각을 제작했다기보다 장식이나 권력, 부, 교양의 과시란 차원에서 조각품을 소유했다. 로마인들의 세속적인 취향을 잘 반영한 것이 초상 조각품이었는데 이는 로마제국의 황제나 귀족이 어떤 용모를 지닌 존재였던가를 파악할 수 있는 실물에 충실한 사실적인 조각품이라 할 수 있다.